

제351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17년6월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 의원(이수혁) 선서 및 인사 1
- 국무위원(외교 강경화·행정자치 김부겸·문화체육관광 도종환·국토교통 김현미·해양수산 김영춘) 인사 2
-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
- 2.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의원 외 261인 서면동의) 4
- 휴회의 건(의장 제의) 4
- 5분자유발언 5

(14시09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문미옥 의원이 퇴직되었으며, 6월 22일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수혁 의원이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10건이 제출되고, 1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의원(이수혁) 선서 및 인사

(14시11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이수혁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수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수혁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혁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회의원 이수혁

○의장 정세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수혁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입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저와 저의 가족의 큰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이틀 전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발탁되어 가신 문미옥 전 의원님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제가 문 의원님만큼 제대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수개월 우리는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소용돌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행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대전환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저도 운이 매우 좋습니다.

요즘에는 일자리 문제 등의 경제위기와 북핵 문제 등의 안보위기는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문제는 우리 국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 되었습니다. 말이나 주장의 성찬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법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한 나라의 건실한 외교·안보 정책에는 그 나라 지도자의 정치철학과 역사관,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국가체제 그리고 그 국가가 속해 있는 국제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정 경험과 지혜를 한 땀 한 땀 배워 가면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금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축하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위원(외교 강경화·행정자치 김부겸·문화체육관광 도종환·국토교통 김현미·해양수산 김영춘) 인사

(14시15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다섯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가운데 새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장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제 앞에 놓인 외교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국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된 김부겸입니다.

국정운영 총괄 지원 부서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다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문화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에 장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국가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씩씩한 삶을 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김현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 국토와 도시 정책, 교통 인프라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민생 부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는 신념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교통비 절감과 도로·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영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양수산 분야가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로 해양수산업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강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열심히 해 주세요.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재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재정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과 선관위 개정 의견을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대안은 이런 위헌법률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도입하기로 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 개혁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총 50억으로 하였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개인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의원 외 261인 서면동의)

(14시26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세균·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 의원의 동의와 261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대표, 정우택 대표, 김동철 대표, 주호영 대표 외 261인이 동의하신 8·15 남북 이산가족 상

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는 최근 경색된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완전 단절되었으며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올해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이어 정례적인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관계를 타개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회도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9인, 기권 2인으로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세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해주겠습니다.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 여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입니다.

국회는 즉각 추경 심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7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연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추경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에 있었던 4당 원내대표 회동이 합의문 작성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논의한다’라는 문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추경에 대한 여야 정당 간의 논의를 계속하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논의를 하는 것조차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제1야당에 걸맞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의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은 즉각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재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룰 회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예결특위 역시 여섯 차례에 걸친 간사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안을 다룰 회의 일정조차 협의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따른 여야 간의 견해와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 시급한 일자리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추

경 심의에 즉각 나서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추경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경 편성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청년 실업은 17년 만에 최대치이며 IMF 외환위기 때에 근접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잠재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는 물경 24%의 실업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0.4%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 GDP 성장 전망치가 2.6~2.8%입니다. 이 추경이 적시에 의결되고 집행되면 오래간만에 우리 경제는 3% 이상의 성장에 진입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DI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수 증가율 및 세수 진도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 2017년도 국세 수입은 260조에서 27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본예산 국세 수입 242조 원 대비 2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최소 18조 원에서 28조 원의 대규모 세입 초과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취약한 경제여건,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여성의 일자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는 대규모 긴축재정정책을 펼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을 끌 물을 남겨두어서 불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1야당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세균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순

자 의원입니다.

초여름 햇살이 불볕입니다. 오늘 국회 잔디밭에는 시원하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국회 잔디는 아직 푸른색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저는 국회 잔디밭에서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를 그냥 두고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온 나라가 뜨거운 불볕 아래 목이 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농작물들은 누렇게 타들어 가고 농민들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농토를 보며 물을 끌어서 대느라 지쳐가며 얼굴은 새카맣게 익어 가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바로 여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내기를 해야 될 논들이 이렇게 전부 타들어 가고 갈라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 혼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께서는 가뭄 현장을 찾아 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회의 주제에서도 가뭄 대책에 관한 대통령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치수는 제왕의 일이고 국가가 다스려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뭄이 나도 죽고 홍수가 나도 죽는 그 시대에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정책은 국가 제일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순시대도 아니고 21세기, 2017년입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가뭄이 나서 죽고 홍수가 나서 죽는 아픔은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뭄은 이제 매년 오는 손님입니다. 거의 매년 가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제 마른 땅에 한숨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선은 당장의 가뭄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 예산은 11조 원이나 편성

했습니다. 생색나는 공공일자리 예산은 산처럼 쌓아 놓고 있어 정부의 일 처리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가뭄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에 아껴 둔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각 부처의 예비비라도 끌어다 재원을 마련하여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은 몇 개월째 전국에 걸쳐 계속되고, 대규모 재해이고 국가적 재난입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부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을, 처절한 농심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바른정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토개발의 핵심인 수자원 개발사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물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중인데 지난달 22일에 갑자기 발표된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되어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토관리는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공단·상하수도·도로·주택의 건설 등은 고유 수행 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도 용수

공급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수자원이 없는 국토계획이나 개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중 강우가 고르고 지형이 평탄하며 물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고 산악 지형의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자원을 국가재난 방지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하수도, 댐, 하천의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부가 담당해 온 수자원 개발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개발사업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고,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994년 낙동강 폐놀 사태 이후 상하수도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지만 수질 개선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물관리만 이원화됨으로써 업무상 연계가 안 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15대 국회에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에 7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활발하게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소통 부재의 정책 결정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민주적 절차의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

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여야 합의로 굳건히 지켜 왔던 국회 운영의 전통과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인하여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집권 여당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간사 선출도 안 되고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협상과 합의라는 운영위의 오랜 전통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위는 의회민주주의를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해 여야에 공평한 중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정부 사이에서 협력적 균형관계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또한 정보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이러한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국정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일관되고 굳건한 관행이자 원칙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집권 여당의 것인 운영위와 정보위는 여당에게 맡겨야 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른 협상보다는 여당의 몫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이래로 국회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모두 집권 여당이 맡아 왔다는 것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운영과 정보위원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무조건 여당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뿐만 아니고 정보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 직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책임졌던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집권 여당이 바뀐 상황이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에 맞고 책임 있는 정치에 부합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 당시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동수 구성까지도 동의해 주었음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저버리면서 보수를 자임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적통이라는 주장에 걸맞게 행동해 주실 것을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이후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들었던 소식들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인선마다 위장전입, 취업특혜, 학력 위조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여성 비하가 넘쳐났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이룩하겠다는 김상조 위원장, 그가 평소 보여 온 편향된 경제관·기업관만으로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데 심지어 토익 성적이 위조된 배우자의 고등학교 전문강사 채용 특혜 및 탈세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논란 등 온갖 불공정 구태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딸을 특정 명문고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곳은 딸을 들여보낸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쳐 간 전입·전출 기록이 단시간에 20여 건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인사 참사였습니다. 안 후보자는 말 그대로 부도덕과 부패의 총본산이었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강제 혼인신고를 하는 도저히 믿기 힘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치 수호의 최전방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안 전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아들은 중대한 학칙 위반으로 퇴학처분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전례 없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습다. 이 과정에 안 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압력과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생부에 징계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채 전형이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2016년 서울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7.4 대 1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퇴학이 거론되는 중대한 학칙 위반을 저지른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대에 수시로,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경환 전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 답이 아닐는지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와 학사관리를 뒤흔든 입시비리 의혹, 고실업 사회 속에서의 취업비리 및 취업특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퇴했다고, 임명이 강행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국정조사를 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과 구태를 뿌리 뽑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외침대로 반드시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인사 참사로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는 ‘이게 나라냐’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여 만에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외침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문로남불’이라는 말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열어 이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을 묻고 지금까지 밝혀진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입시비리 의혹, 취업비리와 특혜 의혹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의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출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실향민 2세대입니다. 황해도 웅진군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피난 내려온 제 아버지는 끝내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고혈압, 중풍과 치매기로 거의 말쑥도 못 하시면서도 저에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북에 생존해 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엄마’ ‘엄마’ 계속 부르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실향민 1세대가 세상을 뜨면서 이미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으며,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의 62%가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도

19%나 됩니다. 이와 같은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 당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념행사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른정당을 비롯해 여야 4당 소속 의원 스물아홉 분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였으나 당시에든 현재 여당인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가족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생긴 역사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인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념일이 아직도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 날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잊혀져 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만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당위성을 보여 주는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처리에 여야 4당이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5대 비리 외 불법 혼인, 자녀 징계 청탁, 만취 운전, 고액의 방산 자문료 등 온갖 추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득권층이 여야를 떠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은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통렬히 자기반성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 지도층, 고위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고도 서민들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사 참사는 현 정부가 코드 인사, 보은 인사에 맞춰 마구잡이식 인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는 행위입니다. 보수는 부끄러워라도 하는데 진보는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샅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사는 이제 국가 안보에 까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 정상 회담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기에 최측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망언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나는 학자로서 내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내 자문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미나를 주최한 우드로윌슨센터

는 문 특보를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unification, national security affairs)’으로 소개했습니다. 문 특보가 학자가 아닌 대통령 특보로서 세미나에 참석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더구나 문 특보가 참석한 워싱턴의 세미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동아시아재단에서 공동 개최한 것으로, 항공료부터 체류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식 행사에서의 언급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치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로닌 미국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문 특보가 워싱턴을 다녀간 후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 3단계 정부임을 선포했다고 인식했다’며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문 특보가 추천한 것입니다. 통일·외교·안보 라인이 문정인의 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 특보가 문재인인의 환관 장양입니까? 과거 중국 후한 때 황제 영제를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른 행세를 했던 십상시의 우두머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문 특보는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요직을 맡을 것으로 보도됐지만 행담도 개발 개입 의혹, 아들의 국적 상실 등으로 꿈을 접었던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문 특보의 발언이 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 특보의 안보 궤변이 공영방송 KBS를 통해 버젓이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에서 문 특보는 자신의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해와 한국의 안보 위기설을 물었다는 등 마치 강 건너 불구경 식의 행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결국 국민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편성이 최근 민주당 정권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 KBS와 청와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최근 방송에 대한 일련의 언동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과거 어용방송을 거느렸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춘추필봉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안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연달아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고, 휴전선 일대뿐만 아니라 후방 깊숙이까지 무인기 침투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사드가 아닙니다. 바로 북한 정권의 핵무장입니다.

그럼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가 한미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학자적인 견

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라는 공인으로서 나랏돈으로 미국에 간 것이지 학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미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문정인 특보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조연자입니다. 학자로서의 견해라고 굳이 고집한다면 외교안보특보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정도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체제의 존망을 걸고 제재를 감수하고 주민들을 굶겨 죽여 가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화나 거래를 통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핵은 동결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결 과정을 거쳐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를 전제로 해야 그 과정에 동결이 따르는 것입니다.

핵 활동의 막연한 중단은 가만히 물에 떠 있는 오리가 물속에서 열심히 발놀림하는 것처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 왔고 방치한 상태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북한 핵은 반드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구실로 사드 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사드 도입을 마치 테러단체가 불법 무기를 도입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사드 포대가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반입되었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이를 몰랐다고 호들갑을 떠는 안보라인은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드 논란을 보면 현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간의 기본적인 약속조차 안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한미 동맹 파기로 이어져서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을 불러왔듯이 또다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합니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입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스스로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명의 해군 장병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국제사회에 고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나 된 목소리는 북의 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의 포기를 이끌어 내자는 것입니다. 대화와 교류, 지원은 완전한 핵 폐기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의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국민은 불편함은 참을 수 있어도 불안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모는 무능, 무책임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32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광림
김기선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반대 의원(7인)

나 경 원 박 대 출 박 병 석 이 주 영
정 중 섭 주 호 영 최경환(한)

기권 의원(16인)

곽 대 훈 김 경 협 김 규 환 김 도 읍
김 용 태 김 정 훈 박 영 선 성 일 중
심 재 철 이 언 주 이 장 우 이 철 우
이 태 규 진 영 홍 문 중 홍 철 호

(박대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32인, 반대 의원 7인임)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축구 결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9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金 成 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문 진 국 문 회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중 손 금 주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회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재 욱
윤 중 오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중 결 이 중 구
이 중 명 이 중 배 이 주 영 이 진 북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철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중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해 숙 전 회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중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웅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천 정 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윤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정 애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2인)

유 기 준 정 용 기

○출석 의원(27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세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균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수혁
이용주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은재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정미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종명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찬열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춘석	이채익	이철우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헌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47인)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신경민	신용현	심재권	안상수
엄용수	오신환	우원식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영석	윤종필
이개호	이명수	이용득	이은권
이재정	이종구	이진복	이철희
이학재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해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윤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한 정 애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52인)

강 효 상	경 대 수	곽 대 훈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칠 승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욱	김 삼 화	김 선 동
김 성 원	金 成 泰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종 회	김 한 표
문 진 국	민 홍 철	박 병 석	박 찬 대
박 찬 우	송 기 석	송 석 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신 환	유 동 수	유 민 봉
윤 영 일	윤 후 덕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양 수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종 명
이 채 익	이 학 영	장 석 춘	전 해 숙
전 희 경	정 세 균	정 유 섭	제 윤 경
주 호 영	진 선 미	최 도 자	홍 일 표

○청가 의원(16인)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수	김 세 연
김 영 우	김 해 영	박 완 주	이 철 규
이 해 훈	정 갑 윤	정 윤 천	조 정 식
지 상 욱	최 연 혜	하 태 경	함 진 규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우 윤 근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위원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김 부 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환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수혁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17. 6. 22.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수혁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017. 6. 22.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개정 특별	김관영	국민의당	2017. 6. 19.
	하태경	바른정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박성중	이은권	자유한국당	2017. 6. 19.
	이재정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2017. 6. 20.
교육문화 체육관광	도종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2017. 6. 22.
안전행정	표창원	도종환		
보건복지	김순례	배덕광	자유한국당	
환경노동	배덕광	김순례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헌법개정 특별	이춘석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2017. 6. 19.
	김동철	김관영	국민의당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2017. 6. 22.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퇴직 (탈당)	2017. 6. 20.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이주영·김규환·김성찬·정우택·송희경·박명재·소병훈·김순례·윤한홍·강효상 의원 발의)

6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민홍철·최인호·이찬열·김수민·윤관석·김상희·정성호·안규백·황희·안호영·전현희·이해찬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오신환·유민봉·여상규·강훈식·김현아·정우택·유승민·유의동·하태경·박인숙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오신환·유민봉·여상규·강훈식·김현아·정우택·임이자·유승민·유의동·하태경 의원 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정춘숙·권미혁·남인순·강훈식·진선미·윤소하·송옥주·양승조·신용현·전혜숙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정성호·한정애·안규백·양승조·김병욱·최인호·윤관석·심상정·박경미·제윤경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박범계·이원욱·박찬대·위성곤·이철희·소병훈·표창원·안규백·서영교·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김상희·윤호중·양승조·김경협·남인순·안호영·김현권·백혜련·이춘석·

전현희·윤관석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신동근·박준영·박경미·김종대·유동수·박찬대·노웅래·조승래·김영호·박정·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신용현·장병완·송기석·최명길·정인화·안규백·김관영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이동섭·김광수·정동영·황주홍·김삼화·오세정·장병완·송기석·최명길·안규백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박재호·윤소하·윤관석·강훈식·박경미·표창원·김상희·인재근·안호영·정춘숙·한정애·백혜련·송옥주·최운열·서형수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신동근·문진국·박찬대·노웅래·김민기·박남춘·전재수·박경미·김병욱·남인순·박정·서영교·오영훈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신동근·문진국·박찬대·노웅래·김민기·박남춘·전재수·박경미·김병욱·남인순·박정·서영교·오영훈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김명연·민경욱·김정재·박덕흠·김성원·임이자·홍문종·염동열·정갑윤·박명재 의원 발의)

6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신창현·유동수·이개호·유승희·백혜련·어기구·김영주·박정·권철승·김종민·설훈·김철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신창현·유동수·어기구·제윤경·민홍철·고용진·이용득·김병욱·유은혜·표창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김성찬·이은권·유승민·홍문표·이종명·문진국·이주영·이명수·박덕흠·정유섭·신보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세연·김삼화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조경태·유기준·박맹우·이현재·최연혜·황주홍·金成泰·정유섭·유민봉·김광립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김성원·정유섭·박명재·서청원·전희경·김정재·김명연·박인숙·김석기·박덕흠·이진복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김성찬·홍문표·유승민·김관영·송희경·이종명·유기준·이은권·박맹우·신보라 의원 발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홍의락·최인호·이찬열·문희상·박재호·한정애·이용득·김현권·윤호중·인재근 의원 발의)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정춘숙·김삼화·권미혁·양승조·남인순·윤소하·강훈식·진선미·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금태섭·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남인순·권미혁·어기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서영교·채이배·김삼화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박남춘·김정우·양승조·인재근·서영교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이동섭·문진국·양승조·정동영·인재근·서영교·채이배·김세연·

김삼화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윤소하 · 심상정 · 노회찬 · 추혜선 · 이정미 · 김종대 · 이동섭 · 문진국 · 양승조 · 정동영 · 인재근 · 서영교 · 채이배 · 김세연 · 김삼화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김성원 · 이은권 · 김정재 · 이우현 · 김학용 · 서청원 · 김명연 · 박인숙 · 김석기 · 박덕흠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김명연 · 민경욱 · 김정재 · 박덕흠 · 김성원 · 임이자 · 홍문종 · 염동열 · 정갑윤 ·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10건 6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심상정 · 김종민 · 진선미 · 김종훈 · 김종대 · 이정미 · 노회찬 ·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채이배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2. 심상정 · 김종민 · 진선미 · 김종훈 · 김종대 · 이정미 · 노회찬 · 윤소하 · 추혜선 · 정성호 · 채이배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2. 김상희 · 윤호중 · 양승조 · 김경협 · 남인순 · 안호영 · 김현권 · 백혜련 · 이춘석 · 전현희 ·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천정배 · 권은희 · 장정숙 · 박주선 · 전해숙 · 송기석 · 안규백 · 박주현 · 소병훈 · 윤영일 · 김광수 · 장병완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정성호 · 양승조 · 김병욱 · 조배숙 · 소병훈 · 최인호 · 윤관석 · 김종민 · 박정 · 심상정 · 한정애 · 제윤경 의원 발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정성호 · 양승조 · 김병욱 · 조배숙 · 소병훈 · 최인호 · 김종민 · 박정 · 심상정 · 한정애 · 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박찬대 · 노웅래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철민 · 신경민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인숙 · 이명수 · 김석기 · 김용태 · 김성원 · 박성중 · 김승희 · 김현아 · 황영철 · 김세연 · 정운천 · 오신환 · 이종구 · 지상욱 · 정양석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3. 민경욱 · 송희경 · 안상수 · 김규환 · 이은권 · 김정재 · 김태흠 · 박덕흠 · 신보라 · 김명연 의원 발의)

6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고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노웅래 · 조승래 · 서영교 · 박남춘 · 유동수 · 강창일 · 박찬대 · 오영훈 · 전재수 · 정성호 · 안규백 · 김병욱 · 박정 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강창일 · 정동영 · 정성호 · 노웅래 · 이종걸 · 박정 · 주승용 · 소병훈 · 정재호 · 오영훈 · 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황영철 · 주호영 · 박성중 · 이종배 · 이종구 · 박명재 · 박순자 · 김현아 · 이학재 · 박덕흠 · 김한표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3. 정성호 · 양승조 · 김병욱 · 소병훈 · 최인호 · 김종민 · 박정 · 심상정 · 한정애 · 제윤경 의원 발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이혜훈·서영교·노웅래·김영춘·황주홍·오제세·유승민·김현아·문진국·박인숙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신창현·강병원·김병기·김영주·김철민·박주민·박광온·박정·이원욱·유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노웅래·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박정·김병욱·윤후덕·강창일·노웅래·김해영·이찬열·어기구·김병관·김철민·신경민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우원식·이학영·최인호·박정·진선미·김종민·박재호·인재근·김현권·백혜련·김병욱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김병관·이용득·박정·최명길·박재호·김철민·문미옥·김해영·이원욱·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김광수·정운천·천정배·이용호·조배숙·정동영·김종희·박주현·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정춘숙·박재호·안규백·김병욱·남인순·윤관석·김정우·양승조·김상희·

권미혁 의원 발의)**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13. 권미혁·김종민·김종대·남인순·정동영·조승래·박완주·박재호·민병두·윤관석·정재호·정춘숙·한정애·박찬대·백혜련·송옥주·유승희·최운열·서형수·김성수·강훈식·김한정·박경미·이훈·김상희·기동민·이철희·인재근·안호영·신창현·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노회찬·정동영·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훈·남인순·윤종오 의원 발의)

**6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안경환) 인사청문 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정성호·김병욱·심상정·박경미·박정·강창일·이철희·소병훈·유승희·윤소하 의원 발의)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박명재·김도읍·박덕흠·김성원·김규환·송희경·정갑윤·김광림·김명연·김성태·나경원·신보라·이주영·박인숙·이진복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이종걸·노웅래·정재호·강창일·박정·윤관석·민병두·박용진·홍익표·김한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이원욱·홍익표·김영진·조경태·권철승·윤후덕·김종대·채이배·문미옥·

김병관 · 김경협 · 신창현 · 윤소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김순례 · 홍문표 · 김성원 · 김선동 · 이주영 · 윤재옥 · 정갑윤 · 나경원 · 윤영석 · 윤종필 · 원유철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박성중 · 윤영석 · 홍문표 · 이은재 · 장제원 · 박찬우 · 김종석 · 이종구 · 여상규 · 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인사청문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노웅래 · 심기준 · 송기현 · 정동영 · 고용진 · 백혜련 · 신창현 · 정성호 · 진선미 · 장정숙 의원 발의)

6월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 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김학용 · 김성태 · 김무성 · 박성중 · 김승희 · 김재원 · 문진국 · 송희경 · 김종석 · 이종명 · 김용태 의원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이철희 · 기동민 · 김병기 · 김병욱 · 김성수 · 김종대 · 노웅래 · 박남춘 · 박용진 · 박정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안규백 · 위성곤 · 윤관석 · 이동섭 · 이상돈 · 이종걸 · 이해찬 · 인재근 · 채이배 · 추혜선 · 한정애 · 홍의락 · 황주홍 의원 발의)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2017. 6. 14. 원유철 · 강석진 · 서청원 · 정종섭 · 김순례 · 김기선 · 김성찬 · 송희경 · 민경욱 · 박대훈 · 박명재 · 김선동 · 김정훈 · 정진석 · 경대수 · 장석춘 · 윤상직 · 백승주 · 김광림 · 윤영석 · 윤종필 · 이균현 · 이만희 · 임이자 ·

송석준 · 강효상 · 김성원 · 정갑윤 · 김성태 · 김한표 · 최경환 · 홍문종 · 신보라 · 나경원 · 조훈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박명재 · 김한표 · 김도읍 · 박덕흠 · 김성원 · 김규환 · 정갑윤 · 김광림 · 나경원 · 이주영 · 박인숙 · 이진복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심재권 · 김영호 · 김경협 · 강창일 · 신창현 · 김종대 · 박정 · 박경미 · 홍영표 · 조정식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정춘숙 · 강훈식 · 인재근 · 기동민 · 양승조 · 어기구 · 김병욱 · 오제세 · 남인순 · 권미혁 의원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남인순 · 김상희 · 이춘석 · 이학영 · 이원욱 · 윤호중 · 정춘숙 · 한정애 · 김현권 · 양승조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정춘숙 · 강훈식 · 전해숙 · 인재근 · 기동민 · 양승조 · 김병욱 · 오제세 · 남인순 · 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 청문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청문 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정갑윤 · 김도읍 · 김성태 · 노웅래 · 이춘석 · 윤영석 · 박맹우 · 김명연 · 이종명 · 성일종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박주현 · 천정배 · 김관영 · 김중로 · 김광수 · 박준영 · 채이배 · 윤영일 · 이동섭 ·

장정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4. 박주현·천정배·김관영·김종로·김광수·박준영·채이배·윤영일·이동섭·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심재권·소병훈·인재근·김영호·김경협·유동수·박찬대·안민석·김종대·홍영표·조정식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6. 14. 박성중·박찬우·김종석·이종구·김용태·정유섭·여상규·김학용·김재경·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나경원·정성호·이주영·정유섭·김정훈·강효상·권은희·권성동·송희경·김종석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정성호·안규백·양승조·김병욱·최인호·박용진·제윤경·유승희·천정배·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제윤경·김병관·김병욱·김종대·김해영·박용진·박찬대·서영교·송옥주·신창현·안규백·유동수·이철희·정성호·한정애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정인화·이동섭·김종회·김철민·황주홍·김관영·박준영·박정·홍문표·박주민·윤영일·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인사 청문요청안

(2017. 6. 15. 대통령 제출)

6월 1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정병국·이명수·주호영·이은권·윤영일·이종구·윤영석·이정현·김종대·이학재·윤한홍·조경태 의원 발의)

6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조명균) 인사청문 요청안

(2017. 6. 15. 대통령 제출)

6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김영호·박남춘·소병훈·김철민·김병욱·김정우·박재호·김병기·윤관석·안규백·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박인숙·김세연·유의동·정운천·이종구·정양석·주호영·오신환·이혜훈·유승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고용진·박경미·김경협·이춘석·표창원·박용진·신창현·최명길·강훈식·노웅래·금대섭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표창원·이해찬·노웅래·박찬대·신창현·송옥주·제윤경·권미혁·유동수·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인사 청문요청안

(2017. 6. 15. 대통령 제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김광수·이용호·황주홍·장정숙·이동섭·김삼화·김종로·최도자·박주현·천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남인순·정춘숙·위성곤·이춘석·신용현·박재호·권미혁·서영교·이철희·윤소하·추혜선·박정·송옥주·박경미·안규백·김종대·조승래 의원 발의)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박주현·천정배·김관영·김중로·
 김광수·박준영·채이배·윤영일·이동섭·
 장정숙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박주현·천정배·김관영·김중로·
 김광수·박준영·채이배·윤영일·이동섭·
 장정숙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5. 박인숙·유승민·김성원·이명수·
 김석기·박성중·김현아·김학용·김승희·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
 청문요청안**

(2017. 6. 15. 대통령 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5. 남인순·박주현·정춘숙·서영교·
 권미혁·조승래·박정·박경미·김종민·
 추혜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정성호·김병욱·박경미·김정우·
 박찬대·유승희·양승조·최인호·천정배·
 백재현 의원 발의)

6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김광림·엄용수·박인숙·김성원·
 김성식·이정현·김학용·이현재·최교일·
 김순례 의원 발의)

6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강효상·나경원·박찬우·정유섭·
 金成泰·이종명·강석진·이주영·염동열·
 곽대훈·김승희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송희경·김재경·고용진·박명재·

박준영·나경원·김상훈·최교일·박순자·
 원유철·조경태 의원 발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
 홍의락 의원 발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
 홍의락 의원 발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
 홍의락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이개호·민홍철·윤영일·정인화·
 노웅래·강창일·김철민·소병훈·황주홍·
 박주민·이종걸·박찬대·유승희 의원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
 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박성중·이은재·김승희·박명재·
 홍문표·김성태·정유섭·여상규·윤영석·
 김재경 의원 발의)

법의관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정갑윤·김석기·박명재·박대출·
 박맹우·권성동·金成泰·이채익·김진태·
 이정현·이종명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김광림·엄용수·박인숙·김성원·
 김성식·이정현·김학용·이현재·최교일·
 김순례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이개호·정인화·강창일·김철민·

황주홍 · 박주민 · 이종걸 · 위성곤 · 백혜련 · 박찬대 의원 발의)

6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김해영 · 최인호 · 이동섭 · 강병원 · 이찬열 · 전재수 · 서영교 · 김민기 · 박재호 · 서형수 의원 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7건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김광림 · 엄용수 · 박인숙 · 김성원 · 김성식 · 이정현 · 김학용 · 이현재 · 최교일 · 김순례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정춘숙 · 강훈식 · 전해숙 · 인재근 · 기동민 · 양승조 · 김병욱 · 오제세 · 남인순 · 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신보라 · 이철규 · 주광덕 · 김순례 · 이명수 · 정진석 · 김성원 · 임이자 · 문진국 · 김성찬 · 김광림 · 박성중 · 박덕흠 · 김종석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 홍의락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6. 신창현 · 이석현 · 김종민 · 송기현 · 김현권 · 김상희 · 김경협 · 원혜영 · 박정 · 강병원 · 문미옥 의원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서형수 · 박정 · 김경협 · 김병욱 · 전해숙 · 신창현 · 송옥주 · 박찬대 · 서영교 ·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 박주선 · 이용득 · 김해영 · 민홍철 · 노웅래 · 안호영 · 김종민 · 권미혁 · 표창원 · 김현권 · 진선미 · 이인영 · 김상희 · 제윤경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6. 16. 전혜숙 · 윤관석 · 송기현 · 신동근 · 정재호 · 서영교 · 안규백 · 홍의락 · 박용진 · 박찬대 · 주호영 · 박남춘 의원 발의)

6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19. 기동민 · 조승래 · 유동수 · 신창현 ·

어기구 · 김한정 · 유승희 · 박정 · 유은혜 · 김병욱 · 김철민 · 인재근 · 백혜련 · 전해철 · 이개호 · 강훈식 · 김종대 · 최운열 · 김상희 · 노웅래 · 이철희 의원 발의)

6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교일 · 김용태 · 김광립 · 송희경 · 이철규 · 김순례 · 金成泰 · 정유섭 · 조훈현 · 김진태 의원 발의)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고용진 · 김병욱 · 최명길 · 윤관석 · 이원욱 · 이찬열 · 조경태 · 김경협 · 박선숙 · 노웅래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교일 · 이철규 · 김순례 · 金成泰 · 정유섭 · 조훈현 · 정진석 · 이완영 · 이우현 · 유기준 · 김기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0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7. 6. 19. 정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교일 · 이철규 · 김순례 · 金成泰 · 정유섭 · 조훈현 · 김진태 · 정진석 · 이완영 · 이우현 · 유기준 · 김기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추혜선 · 윤소하 · 심상정 · 진선미 · 김종대 · 문진국 · 노회찬 · 윤종오 · 이철희 · 김현아 · 이정미 · 김삼화 의원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김상희 · 서영교 · 김병욱 · 박주민 · 권미혁 · 정성호 · 윤소하 · 김종대 · 박찬대 · 신창현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이상민 · 이종걸 · 윤후덕 · 김경진 · 김성수 · 김민기 · 문미옥 · 황희 · 박경미 ·

박홍근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오세정 · 김경진 · 유동수 · 김현아 · 고용진 · 유성엽 · 金成泰 · 서영교 · 유승희 · 김성수 · 김병욱 · 이군현 · 김삼화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한)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최경환(한) · 김경진 · 김광수 · 김삼화 · 김정우 · 김종희 · 노웅래 · 박선숙 · 박주선 · 소병훈 · 신용현 · 이동섭 · 인재근 · 주승용 · 천정배 · 최경환(국) 의원 발의)

6월 2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기동민 · 권미혁 · 조승래 · 유동수 · 신창현 · 어기구 · 김한정 · 유승희 · 박정 · 유은혜 · 김병욱 · 김철민 · 인재근 · 백혜련 · 전해철 · 이개호 · 강훈식 · 최운열 · 김상희 · 노웅래 의원 발의)

6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박찬대 · 김정우 · 김병욱 · 채이배 · 박범계 · 장정숙 · 안호영 · 박용진 · 박남춘 · 소병훈 · 민병두 · 송옥주 · 노웅래 · 권미혁 · 박정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박남춘 · 서영교 · 윤소하 · 안규백 · 강창일 · 김정우 · 윤관석 · 김현권 · 김영호 · 전해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박남춘 · 서영교 · 한정애 · 윤소하 · 안규백 · 강창일 · 김정우 · 윤관석 · 김현권 · 김영호 · 전해철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이명수 · 함진규 · 김순례 · 박순자 · 김석기 · 홍문표 · 김승희 · 박인숙 · 김성원 ·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김현권 · 소병훈 · 위성곤 · 표창원 · 신창현 · 엄용수 · 박정 · 송옥주 · 유승희 · 이용득 · 민병두 · 송기현 · 이재정 · 어기구 · 박재호 · 김상희 · 김영호 · 진선미 · 홍문표 · 문미옥 · 김병욱 · 홍의락 의원 발의)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홍의락 · 이개호 · 김민기 · 손혜원 · 설훈 · 문희상 · 김현권 · 유동수 · 조승래 · 문미옥 의원 발의)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권미혁 · 서영교 · 서형수 · 김병욱 · 노웅래 · 김정우 · 박찬대 · 박재호 · 전재수 · 정성호 · 박정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서영교 · 유동수 · 표창원 · 정성호 · 노웅래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김상희 · 김정우 · 유동수 · 표창원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윤소하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김상희 · 김정우 · 유동수 · 표창원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이장우 · 정성호 · 김삼화 · 함진규 · 윤상현 · 김정은 · 김성찬 · 이주영 · 이명수 · 이현승 · 나경원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기동민 · 권미혁 · 조승래 · 유동수 · 신창현 · 어기구 · 김한정 · 유승희 · 박정 · 유은혜 · 김병욱 · 김철민 · 인재근 · 백혜련 · 전해철 · 이개호 · 강훈식 · 최운열 · 김상희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이원욱 · 권칠승 · 윤후덕 · 김종대 · 문미옥 · 김병관 · 백혜련 · 신창현 · 윤소하 · 신경민 · 윤관석 의원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서형수 · 송옥주 · 박재호 · 전재수 · 권미혁 · 한정애 · 윤관석 · 박찬대 · 표창원 · 박남춘 · 김해영 · 김병욱 · 신창현 · 노웅래 · 최인호 · 이용득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6. 19. 함진규 · 윤한홍 · 정유섭 · 강석진 · 이명수 · 엄용수 · 임이자 · 송희경 · 안상수 · 광대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박주현 · 장정숙 · 김종민 · 이동섭 · 김삼화 · 김광수 · 천정배 · 박찬대 · 김중희 · 윤영일 의원 발의)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박주현 · 장정숙 · 김종민 · 이동섭 · 김삼화 · 김광수 · 천정배 · 박찬대 · 김중희 · 윤영일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박정 · 김병욱 · 윤후덕 · 강창일 · 김해영 · 이찬열 · 어기구 · 김철민 · 이훈 · 권칠승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김관영 · 주승용 · 정인화 · 김중로 · 조배숙 · 박지원 · 이동섭 · 송희경 · 장정숙 · 정동영 · 천정배 · 이용호 · 이학재 · 이종걸 · 김삼화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박명재 · 송희경 · 김명연 · 김광립 · 박덕흠 · 원유철 · 임이자 · 김정재 · 김성원 ·

엄용수 의원 발의)

6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안호영 · 김상희 · 박찬대 · 송기현 · 안규백 · 임종성 · 윤관석 · 백재현 · 김현권 · 이종걸 의원 발의)

6월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정재호 · 서영교 · 이춘석 · 강창일 · 전재수 · 이종걸 · 윤영일 · 전해숙 · 김종민 · 박홍근 의원 발의)

6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백재현 · 김정우 · 신창현 · 박정 · 전재수 · 권미혁 · 고용진 · 강창일 · 박재호 · 유동수 · 김성수 · 홍의락 · 박남춘 · 소병훈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백재현 · 김정우 · 신창현 · 박정 · 전재수 · 권미혁 · 고용진 · 강창일 · 박재호 · 유동수 · 김성수 · 홍의락 · 박남춘 · 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노웅래 · 강창일 · 오영훈 · 정성호 · 안규백 · 김병욱 · 김민기 · 박정 · 최명길 · 서형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백재현 · 조승래 · 김정우 · 김종민 · 박정 · 소병훈 · 박남춘 · 이철희 · 유동수 · 윤관석 · 송옥주 · 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심재철 · 송희경 · 김성태 · 이종명 · 경대수 · 박순자 · 김재경 · 광상도 · 박완수 · 박대출 · 최교일 의원 발의)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서형수 · 송옥주 · 박재호 · 전재수 ·

남인순 · 권미혁 · 서영교 · 한정애 · 윤관석 · 박찬대 · 박남춘 · 김해영 · 김병욱 · 신창현 · 노웅래 · 최인호 의원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이용득 · 안규백 · 홍의락 · 조배숙 · 정성호 · 신창현 · 노웅래 · 서형수 · 김현권 · 이정미 · 문진국 · 박남춘 · 이해찬 · 한정애 · 송옥주 · 김종대 · 심상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안호영 · 김상희 · 박찬대 · 송기현 · 안규백 · 임종성 · 윤관석 · 백재현 · 강병원 · 이종걸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6. 20. 안호영 · 박찬대 · 송기현 · 안규백 · 임종성 · 윤관석 · 백재현 · 김상희 · 강병원 · 이종걸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권성동 · 박명재 · 정갑윤 · 조훈현 · 박덕흠 · 심재철 · 김선동 · 나경원 · 이진복 · 이종명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삼화 · 김경진 · 이동섭 · 최명길 · 박주현 · 손금주 · 박선숙 · 박준영 · 김관영 · 이용주 의원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삼화 · 박준영 · 이용득 · 이동섭 · 서형수 · 박주현 · 황주홍 · 김광수 · 김관영 · 이용주 · 신용현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삼화 · 김경진 · 이동섭 · 최명길 · 박주현 · 손금주 · 박선숙 · 박준영 · 문진국 · 김관영 · 이용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윤소하 ·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 이정미 · 김종대 · 이원욱 · 김상희 · 박준영 · 김정우 · 유동수 · 김삼화 · 노웅래 · 박남춘 ·

문진국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최도자·강창일·김경진·김광수·
김삼화·김수민·김중로·김종희·남인순·
서영교·유승희·이용주·윤소하·이동섭·
전혜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
박성중·정태욱·김규환·김승희·유재중·
최연혜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장제원·정성호·김종대·정우택·
김성찬·이주영·나경원·이춘석·김현아·
이양수·김무성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채이배·박찬대·김종희·박주현·
김광수·김삼화·천정배·김성수·이철희·
박선숙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윤영석·김승희·박맹우·박성중·
박완수·성일중·원유철·이진복·이채익·
정갑윤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노웅래·조승래·서영교·박남춘·
유동수·강창일·박찬대·김세연·오영훈·
남인순·전재수·정성호·안규백·송옥주·
김병욱·박정·박주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이장우·김재원·이종명·문진국·
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
이명수·이현승·이채익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윤영석·김승희·박성중·박완수·
성일중·원유철·이진복·이채익·정갑윤·
정병국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박용진·박찬대·이철희·고용진·

최명길·심상정·제윤경·김영주·김관영·
김해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심재철·권석창·김성태·이종명·
경대수·박순자·김재경·곽상도·박완수·
박대출·최교일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박주민·이용득·신창현·기동민·
박정·유동수·김철민·강창일·박찬대·
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황주홍·김재원·엄용수·김영춘·
김성찬·윤후덕·장정숙·박정·홍철호·
이양수·이동섭·박준영·윤소하·황영철·
김철민·김용태·오제세·윤영일·신상진·
백재현·조배숙·이원욱·유성엽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남인순·강창일·김삼화·박남춘·
윤후덕·이원욱·이종걸·이학영·이훈·
임종성·최도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7. 6. 21. 김승희·안상수·김상훈·윤영석·
박덕흠·이명수·강석진·엄용수·이완영·
이현재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7. 6. 21. 김정재·박덕흠·황영철·곽대훈·
이완영·엄용수·박명재·강석호·김상훈·
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2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17. 6. 22. 정세균·우원식·정우택·김동철·
주호영 의원 외 261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 6. 22. 안전행정부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7. 6. 22. 의장 제의)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4일간)

○의안 심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4. 12. 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
김종민·서형수·심상정·윤소하·이종걸·
김종훈·김영춘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7. 5. 31. 양승조·권미혁·조정식·정춘숙·
박남춘·김정우·이찬열·강훈식·이개호·
김경협 의원 발의)

6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안경환) 인사청문
요청안

(2017. 6. 14. 대통령 제출)

6월 20일 제출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2017. 6. 13. 김준성 외 53인으로부터 소병훈·
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7. 6. 19. 통일부장관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반려동물 자율적 표준 진료제 도입’에 관한 질문서

(2017. 6. 13. 김상희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국회감사요구사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
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
지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
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요구사항 「차은택과 연관된 놀품체조
부당지원 및 은폐,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 및 훈련수당 부당지급, 훈련일지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요구사항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

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등과 관련하여 문화
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요구사항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장애인
휠체어펜싱팀 창단과정의 특혜 의혹 등과 관련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한 감사 및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
CREDIT 제도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주)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2017. 6. 13. 감사원 제출)

이상 4건 6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사
예산 사적 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7. 6. 15. 감사원 제출)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송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7. 6. 20.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미옥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17. 6. 2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
대표 국회의원 문미옥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이수혁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